

참숯(사람을 살리는 신비의 숯)

柳 相 基



- 目 次 -

1. 들어가는 말
2. 숯에 대한 어원(語源)과 유래, 그리고 그 성분(成分)
3. 고전(古典)과 민방(民方)에 나타난 숯
4. 의서(醫書)에 나타난 숯의 처방
5. 본 제품의 특성과 의의

1. 들어가는 말

인류의 불의 발견과 함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숯은 인류의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오랜 세월을 함께 어우러져 내려왔습니다. 뿐만아니라, 불교의 설에 의하면 삼라만상을 창출한 사대원소(四大元素 : 地水火風)의 하나인 불의 부산물이라는 점에서 숯에 대한 에너지의 구성요소와 그 효능을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숯을 생활에 널리 사용하여 왔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르러 숯의 효능에 대해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진정 만시지탄(晩時之歎)을 금할 길 없습니다.

특히 현대문명의 발달로써 뻣뻣한 빌딩숲, 거리의 끝없는 자동차의 행렬, 공장에서 내뿜어대는 악성매연, 화학조미료와 농약의 공해, 화학제의 의복과 도구들,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의식주(衣食住)의 문제를 두고 보더라도 그 폐해의 중독성은 말로 형언키 어려운 정도입니다. 본인이 이 문제를 말로 모두 표현해보면 오히려 저 자신까지 두려움에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몸소 겪는 생활로 너무 잘 알고 있으리라 믿기에 이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의 제시로 우리는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숯의 효

□ 참숯

능에 대해 일고(一考)를 가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본인은 숯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미네랄과 해독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숯에 대한 어원(語源)과 유래, 그리고 그 성분(成分)

(1) 숯의 어원과 유래

먼저 숯 탄(炭)자에 대해 살펴보면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나무를 불태우되 재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燒木未灰也)”라 하였고, 이희승의 「국어사전」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간행 「한국민족대백과사전」에 의하면 “숯가마에서 나무를 탄화시켜 만들어낸 연료. 목탄(木炭)이라고도 한다” 하였습니다. 숯은 숯가마를 이용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지만 대체로 공기가 차단된 숯가마에서 구워낸 것입니다. 숯은 인간이 불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할 때부터 생겼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인간은 약 6000년 전부터 숯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숯은 이처럼 유구한 역사를 가짐에 따라서 다양한 용도로 쓰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숯은 연료로뿐 아니라 방취(防臭), 방독(防毒), 절연(絶緣), 원예(園藝) 등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목탄화용의 숯은 참나무, 소나무, 버드나무, 사시나무, 뱃나무, 오동나무 및 물푸레나무 등을 재료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금, 은, 철기 등을 연마하는데는 버드나무·동백나무, 목련 등으로 만든 숯을 화장용 숯은 오동나무가 이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숯의 다양한 용도에 따라서 조선시대의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각 고을의 향리(鄕吏)는 해마다 번호를 정하여 차례로 서울로 올라가서 각 관사에 배정된 목탄을 준비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417년 태종 17년에는 호조(戶曹)에서 수탄법(收炭法)을 70근인 한 섬으로 할 것을 올려 그 안건이 받아들여졌고, 또한 향탄산(香炭山)이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능원묘(稜園墓)에 사용할 숯을 공출시키는 숯을 말합니다. 이처럼 조선시대 들어서는 숯에 대한 국가의 규정이 명백해 졌습니다.

(2) 숯의 종류와 성분

숯의 종류는 크게 흑탄(黑炭)과 백탄(白炭)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흑탄(黑炭)은 6~800도의 저열로 정련한뒤 숯가마안에 2~3일간 두었다가 100도 정도가 되었을 때 꺼낸 것으로 가스를 50%만 제거한 것입니다. 이는 대체로 뿔감용입니다.

백탄(白炭)은 8~1300도의 고열로 정련한뒤 꺼내어 흙 재 탄불을 혼합한 소분(消粉)을 덮어 빠른 속도로 불기를 꺼버린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가스를 완전 100%제거하여

식용으로 적합한 숯입니다.

백탄은 흑탄보다 탄화(炭火)온도가 높기 때문에 탄소함유비율도 흑탄의 75.2%에 비하여 83.3%로 높습니다. 흑탄을 굽는 가마는 주로 흙으로 만들고 백탄을 굽는 가마는 돌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흙가마 돌가마라 하는데 숯가마의 크기나 모양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식용으로 가능한 백탄의 성분만을 살펴보면 미네랄과 다공성 음이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 숯의 신비한 성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간단히 아래에 서술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숯은 탄소질의 83.3%이고 나머지가 미네랄, 칼슘(Ca), 나트륨(Na), 철(Fe), 마그네슘(Mg), 칼륨(K), 인(P),으로 구성되어 무엇보다 귀중한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그것은 나무가 토양에서 빨아올린 천연미네랄이 균형있게 들어있는데 숯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농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미네랄은 생명체의 전기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숯은 특유의 다공성(多孔性)으로 방취(防臭)와 방부(防腐)의 효능이 뛰어납니다. 숯 1g 내부 표면적이 무려 3백 평방미터나 됩니다. 즉, 손마디 정도의 크기 숯에는 테니스 코트장 정도의 표면적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목탄을 활성탄이라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런 구멍이 미생물의 주거 공간이 되어 유해한 세균과 냄새를 흡착하는 방취, 방부 작용을 및 습도조절을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숯이란 음이온(-)을 공급한다. 이온이라 전기를 띠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립자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양이온은 오염된 공기 속에 많이 있고, 음이온은 공기가 많은 산속이나 바닷가, 계곡 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음이온은 산소가 풍부하여 공기를 맑게 하고 모든 생명활동을 돕는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의 악취는 냉장고내의 산소가 부족할 때 산소를 싫어하는 미생물이 많이 번식하여 가스를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 숯의 음이온의 효과로 냄새제거 및 신선도를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세포활동의 활성화로 각종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작용,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내에 음이온을 흡수함으로써 자연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생명의 원천으로 몸 속에 받아들여 현대인에게 증가하고 있는 자율신경실조증을 회복시켜주는 작용과 더러운 것을 물리치고 깨끗하게 하여주는 정화작용도 있습니다.

3. 고전(古典)과 민방(民方)에 나타난 숯

고전에 나타난 숯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예기(禮記)」〈월령(月令)〉편에서는 “9월이 되어 풀잎이 노랗게 물들고 나뭇잎이 떨어지면 나무를 쪼서 숯을 만든다. ((季秋之月))

■ 참숯

草木黃落，乃伐薪爲炭” 하였고, 진(晉) 갈홍(葛弘)의 「포박자(抱朴子)」 〈지리(地理)〉편에서는 “갈참나무는 쉽게 썩는 나무입니다. 하지만 이를 구워 숯을 만들면 억만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 당(唐) 백거이(白居易)의 〈매탄옹(賣炭翁)〉시에서는

賣炭得錢何所營 숯 팔아 돈 몇 푼 얻으면 무엇하리오

身土依裳口中食 몸에 걸친 옷가지와 입에 풀칠거리 장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해진 계절에 숯을 만들었고 또한 숯의 성분에 대해서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때에 이르러 이미 숯장수가 등장할 정도로 숯은 화목 내지 다른 용도로 보편화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숯은 이처럼 오래 전부터 매우 유용하게 쓰여져 왔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숯의 이러한 역사는 우리 민족의 민속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음력 정월 16일은 귀신날이라고 해서 몹쓸 귀신이 돌아다니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귀신을 쫓는 수단으로 숯가루에 불을 부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뽕나무의 숯가루는 불똥을 튀기면서 타기 때문에 아이들은 뽕나무가지를 태워서 가루를 만들고 이것을 무명천으로 만든 가늘고 긴 주머니 안에 꼭 채우고 들레를 무명실로 감아 단단하게 만든다. 지름이 약 3~4cm정도 되고 길이는 15~25cm가량 되는데 무명천을 가늘게 도린 것을 넣어 심지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대문이나 나무 막대기 끝에 달아 어두워진 심지에 불을 붙입니다. 심지가 타들어감에 따라 숯가루는 불똥이 되어 탁탁 튀면서 떨어집니다 그 타는 모습이 장관이고 동네에는 불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이 불꽃을 보고서 멀리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불꽃놀이를 연상하게 하는 아름다운 민속행사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민족은 숯이란 더러운 것을 물리치고 깨끗하게 하여주는 정화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간장 담글 때나 아기를 분만하였을 때 금줄을 문간에 걸어 숯 몇덩이를 달았으며, 아기가 출생해서 처음 외가에 찾아갈 때에는 아기의 이마에 숯검정이나 그을림을 칠했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더러운 것을 물리치고 깨끗한 것을 보존하여 아기를 보호하려는 바램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숯은 건축물의 기초나 무덤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있는 것도 숯을 이용한 지혜였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고려 중기에 지은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이라는 부석사 무량수전의 집터 밑에 숯과 소금을 넣었다는 것도 재론할 여지가 없는 예들입니다.

이처럼 집의 주춧돌이 놓이기전 지반을 다지는 기초공사에 사용되어졌는가하면 연료용뿐 만 아니라 방취(防臭), 방독(防毒), 방부(防腐)등 여러 곳에 쓰여왔습니다 특히 이집트의 피라미드, 일본의 고사찰과 고분에 숯을 사용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숲의 신비는 1972년 중국의 후난성(후난省) 장사시(長沙市)에서 약 2500년 전의 고분속에서 발견된 주인공 여성은 시신이 전혀 부패되지 않은 채, 죽은지 겨우 4일 정도의 생생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깜짝 놀란 사람들은 그 여인의 시신을 여러 모로 조사한 결과 나이는 50초반, 혈액형 B형, 사인은 결핵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밝혔을 만큼 생생한 상태였으면, 더욱 놀라운 일은 위장 안에 오이 씨앗이 176개나 들어 있었는데, 이것을 심었더니 모두 발아(發芽)했다는 사실입니다. 씨앗은 보통 10년만 되어도 발아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무려 2500여 년이나 보존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할 뿐입니다 그 고분의 구조를 살펴보면 약 5톤의 숲이 그 여인의 관을 둘러싸고 있었다 합니다 이러한 기적은 숲의 양이 많으면 강력한 음이온을 만들기 때문에 시체의 산화반응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과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숲에는 불가사의의 신비가 있어 작용으로 여러가지 민방이 전해오고 있으며 근래에 들어서는 특히 봄을 이루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의 식이요법 및 외용(外用)으로도 다양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숲을 집안에 놔두기만 해도 인체에 해로운 독소가 정화됨으로서 상쾌하고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불면증도 없애줍니다. 그 방법은 베개나 침구에 숲을 넣어 베거나 침구의 아래에 깔아두면 잠자는 순간 음이온을 체내에 받아들임으로써 짧은 시간에도 숙면을 취할 수 있으며 인체에 산재해 있는 365경혈을 자극해 두통, 고혈압, 눈의 피로회복 뿐만아니라, 음이온 흡수력으로 면역성이 강화되어 각종 질병으로부터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숲은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땅의 자장(場)을 높이는 데에도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즉 철근과 콘크리트에 둘러싸인 오염된 자장(磁場에너지)을 산과 강, 논과 밭, 물과 나무 등 자연의 혜택을 받는 공간의 자장(滋場)으로 변화시켜줍니다

그러나 「통감(通鑑)」을 살펴보면 “예양(豫讓)은 숲을 삼켜 병어리가 되었다(吞炭爲啞)”는 고사가 있는 것으로 보면 숲이란 결코 모두 영양만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4 의서(醫書)에 나타난 숲의 처방

우리의 선조들은 일찍부터 숲의 효능에 대해 깨달았고 이를 처방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 그 성능은 뛰어난 것으로 의서(醫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준 선생이 지은 「동의보감」권1에 나타난 숲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처방 가운데 <백초회(白草灰)>의 효능만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참숯

〈백초회(白草灰)〉, 主液臭及金瘡 五月五日乘露取 一百種草, 陰乾燒作灰也(「본초(本草)」)〈백초회〉는 겨드랑이에서 나는 노린 냄새와 금창(金瘡)을 주로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단오일 이른 아침, 이슬에 젖은 1백가지의 풀을 채취하여 그늘에 말린뒤, 이를 태워서 재로 만들어 사용한다.

「동의보감」에 나타난 재, 곧 숯의 성분에는 냄새를 억제하는 방취(防臭)기능, 그리고 창상(創傷)의 독을 제거하는 방독(防毒)효과, 그리고 새살을 돋아주는 생기(生肌)기능이 탁월함을 단편으로나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입문(醫學入門)」권3을 살펴보면 〈백초회〉의 처방, 치료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백초회(白草灰)〉, 端日採露取之一百種, 陰乾燒灰, 以井華水爲丸, 重燒令白, 以酸和爲餅, 液下夾之, 乾即易抽. 一身痛悶瘡出即止 以小便洗之, 不過三度, 液臭自無 又主金瘡止血生肌, 取灰和石灰爲丸, 燒令白刮傳之 丸을 지어서 다시이를 태워서 백색이 되게 하고 식초(酸)로 이를 버무려 떡처럼 만들어서 겨드랑이 아래 끼우고 마르면 다시 끼운다 온몸에 통증이 오거나 짓무르면 곧 겨드랑이에 끼운 것을 중지하고 소변으로 씻어야 한다. 이처럼 하면 세차례를 하기도 전에 겨드랑이의 노린냄새는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또 금창(金瘡)의 지혈(止血)과 새살을 돋게 하는데 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백초회〉의 잿가루에다가 석회(石灰)를 섞어서 환으로 만든 뒤, 이를 태워서 환자가 그 태운 환을 스스로 긁어서 부치도록 한다

이처럼 〈백초회〉는 근대의 난치병으로 여겨지는 액취(液臭)를 단 세차례 부치어 치료하고 있습니다. 숯에는 이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효능이 있었음을 발표자 역시 새삼스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약대사전(中藥大辭典)」5권 99쪽에는 명백하게 백탄환(白炭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백탄의 이명(異名)으로는 「천금방(千金方)」에서는 화탄(火炭), 「성제총록(聖濟總錄)」에서는 무문탄(無紋炭), 「보제방(普濟方)」에서는 목탄(木炭), 「경험방(經驗方)」에서는 부탄(부炭)이라 하였다

이의 주된 치료기능은 장풍(腸風) 하혈(下血)과 음낭(陰囊)의 습진(濕疹), 그리고 탕상에 있다. 「강목(綱目)」에 의하면 “금은(金銀) 동철(銅鐵)을 잘못 삼켜 뱃속에 있으면 백탄(白炭)을 붉게 태웠다가 갑자기 분말을 만들어서 뜨거운 물로 삼킨다 심한 경우에는 그 분말 3전(錢)을 굵어내어 샘물에 타마시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다시 복용한다 또한 수은(水銀)과 경분(輕粉) 독(毒)을 풀어주기도 한다” 하였다.

「중약대사전(中藥大辭典)」에서 말한 백탄은 거습(去濕)과 해독(解毒)기능의 탁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에 사는 공해와 수은의 중독에 획기적인 효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에서 다시 거론할 것이기에 여기에서는 이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옛말에도 있듯이 “아무리 황금가루가 귀해도 눈 속에 들어가면 한낱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金屑雖貴, 入成眠翳)”고 하였습니다 이를 모방하여 말씀드린다면 아무리 숯의 효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이역시 잘못 처방하여 쓰면 약이 아니라, 오히려 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점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5. 본 제품의 특성과 의의

요즘에 들어 숯이 만병통치약으로 대두되어 경향 각지의 관심사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효능에 대해 감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 보다 나은 처방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여 국민보건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편적으로 민방에서 범하고 있는 두가지 잘못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방에서 흔히 쓰는 숯가루는 시중에 판매되는 밀가루의 분말만큼 미세하다. 그것은 약 180메쉬의 분말입니다. 이 정도의 밀가루는 인체에 해가 되지 않지만 숯의 경우 장출혈증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것은 분말이 정도가 거칠어서 체내에 흡수되지 못하고 장에 상처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1330도의 순수백탄, 즉 완전연소로 가스가 모두 제거되지 못할 경우 체내의 가스축적과 소화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반독반약(半毒半藥)의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설령 순수 백탄이 아닌 불순물이 섞인 숯을 복용할 경우 큰병은 치유된다 할지라도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인은 한의학에 기초를 두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현미백탄환(玄米白炭丸)”을 고안(考案) 중에 있는데, <현미백탄환>의 처방에 아래와 같다.

흡착력과 해독작용이 강한	참숯가루	60%
지방으로 오염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참쌀현미	15%
비장과 위장을 보호하는	백출가루	10%
소화효소를 발휘하는	맥아	7%
위장을 열어주고 담기를 풀어주는	신곡	8%

<현미백탄환>은 참나무 원목을 1,300도의 고열로 구워 가스를 100% 제거하여 식용

■ 참숯

으로서의 결격이 없는 무해(無害) 무독(無毒)의 원료를 선택하였고, 이를 360리쉬로 분쇄하여 분진(粉塵)처럼 고도로 연마하여 식수에 댔을 때 즉시 분해될 정도로 정밀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식품공학박사의 임상실험결과, 180메쉬로 분말하여 닭에게 임상실험한 결과 복용 1개월 정도에 장출혈이 발생했으나 360메쉬로 처리한 후 복용하자 1주일 만에 완치된 사례등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상기 다섯 가지의 맛이 인체(人體)의 오장(五臟)과 천리(天理)의 오방(五方)을 중심으로 음양조화를 이루어 인체 조직을 재생, 보호하는 원리를 적용, 처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현미백탄환>은 임상실험 결과 아래와 같은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장질환, 소화불량, 위염, 위궤양, 악취제거, 구취(口臭·입냄새), 이질설사, 신경성변비, 아트로성 피부염, 스트레스, 간질환, 당뇨, 고혈압, 체질개선(산성화된 체질을 알카리성 체질로 바꾸어 준다), 해독작용, 지혈작용, 소염진통, 부기제거(비만), 점골작용, 불면증입니다

이 가운데 몇 가지 예를 들면, 먼저 산화와 환원력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무수한 산화와 환원이 반복됩니다. 세포가 노쇠하거나 부패했다가도 다시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고 그 기능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하기도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점점 대사기능이 쇠퇴하여 산화가 우위를 차지하면서 결국 산화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은 건강을 유지하면서 오래 살기 위해서는 되도록 산화를 방지하고 환원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숯이 그 환원력을 높게 복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해독 작용입니다. 숯은 모든 독성 성분을 분해, 해독, 제거하므로 옛날부터 민간요법으로 많이 사용해 왔으며 현대에 와서는 유해물질과 산성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매일 7.5g 숯가루를 복용함으로써 인체에 흡착된 모든 유해물질을 정화, 해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콘크리트의 철제구조속에서 인류의 체질이 산화되었고, 인체의 생명원인인 물 역시 화공약품으로 처리된 수도물을 마시고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 음식물은 화학 조미료의 범람과 농약의 중독으로 우리의 몸은 찌들대로 찌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의 독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현미 백탄화의 해독기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체의 환원력(還元力)을 높여주는 삶의 보고(寶庫)라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이르러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숯은 모든 비만의 근원을 제거해 줍니다. 인체에 에너지 공급의 시작인 위와 장이 정체되면 순환기능이 저하되고 장의 기능이 둔화되어 배설이 정상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음식물이 차츰차츰 잔류(殘留)하여 아랫배가 나오고 수종(水腫)이 일어나 결국

비만이 됩니다. 비만은 음식물이 완전분해 되지 않고 축적된 것으로 자정능력이 상실되어 체내수분이 정작 씻어내지 못하고 체내에 잔류 음식물의 독소가 세포조직에 정체됨으로 외관상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비만은 장속의 필요한 장균 확보가 되지 않아 부패된 단백질과 지방분의 찌꺼기가 장내에서 분해되지 못하여 오래된 산성(酸性), 부패(腐敗)한 변(便)과 부패가스이므로 이런 숙변을 깨끗이 청소해 내면 비만의 근원은 저절로 소멸되고 영양공급이 원활해지고 체질이 개선되어 인체에 불필요한 지방이 없어지면서 깨끗하고 부드러운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위와 장에 잔류하는 음식물 찌꺼기를 매일같이 청소하여야 하는데, 청소기능으로는 정화기능이 뛰어난 숯보다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숯은 환경오염에서 해방시키고 산성화된 인체조직을 정상화시키는데 가장 귀하고 없어서는 안될 보물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명륜2동 815-2 유한한약방 ☎ 0371-762-7575)

상 식 메 모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그 마음을 치료하여야 한다. 마음을 바로 잡으면 수양하는 방법에 도움이 된다. 환자로 하여금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염려스러운 생각 그리고 일체 헛된 잡념과 불평과 자기 욕심을 다 없애버리고 지난날의 죄과를 뉘우치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身心을 편하에 하여서 생활방법이 자연의 이치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 太白真人 -